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통신기사 등 출처명시

-통신기사를 자사기자 명의로

▲ 2010 - 112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3. 우리일보 발행인 신 영 모

〈주 문〉

경인일보 2010년 5월 5일자 8면 「마법의 아이패드」 밀리언셀러 달성」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5월 11일자 2면 「김진표-유시민 “내가 책임자” 격돌」 제하의 기사, 우리일보 5월 14일자 1면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송도 개막」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 호남매일 우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3G 모델 판매 성과에 힘입어 출시 한 달 만에 미국 내에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4일 업계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해외언론 등에 따르면 아이패드 3G 모델은 사흘 만에 30만대 이상이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공식 발표를 통해 “아이패드가 28일 만에 100만대 판매고를 달성, 아이폰의 74일 기록을 절반 이상 앞당겼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우리로선 이 마법의 기기를 소비자들 손에 전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앱스토어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이패드

에 특화된 5천개 이상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20만개 이상의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앱스토어에 올라 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이미 앱스토어에서 1천20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았으며 아이북 장터에서 150만권 이상의 전자책을 구매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많은 분석가들은 아이패드가 올해 내에 500만대가량 팔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300만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

WSJ의 월트 모스버그 칼럼니스트는 이를 ‘노트북 킬러’라고 표현하며, “터치스크린을 갖춘 이 아름다운 기기가 휴대용 컴퓨터의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며, 노트북의 우월성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패드는 이달 말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에서 발매되며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최○○기자』

(호남매일)=『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를 놓고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가 라디오 토론회에서 자신이 책임자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을 벌였다.

김·유 두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의 집중 토론에 출연, 누가 더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본선에서 본선경쟁력이 뛰어난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번 라디오토론이 11~12일 실시되는 여론조사와 경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후보는 “난 민주개혁진영은 물론 합리적 보수성향의 표까지 흡수할 수 있어 표의 확장력에서 우위에 있다.”라며 “유 후보는 지지층 못지않게 강한 거부층이 있어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김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인 김문수 지사보다 온건하고 보수적으로 비쳐 득표력이 부족하다.”라며 “내가 단일후보가 되면 이번 주에 김 지사와 지지율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 “한명숙(서울)-유시민(경기)-송영길(인천)로 야권 연합이 돼야 3곳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정당경쟁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책 공약과 관련, “유 후보는 복지총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김 후보의 복지·교육공약 역시 2·3년 내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라고 반박했다.(하략) 이○○기자』

(우리일보)=『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재정시스템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66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가 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됐다.

UN 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 6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사회 개발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역내 최대 규모의 정부간 기구이다.

지난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8번의 마라톤 논의를 거쳐 채택된 전 세계적 빈곤 타파를 위한 목표로, 당시 참가한 192개 유엔참여국들과 23개 국제기구들이 모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했다.(하략) 박○○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경인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4일 10:15에 전송한 <아이패드, 출시 한달만에 ‘밀리언셀러’>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을, 호남매일 기사는 연합뉴스 5월 10일 10:24 전송 <김진표 유시민, 후보 단일화 앞두고 ‘격돌’> 제하의 기사 중 거의 대부분을 일부 표현만 바꾼 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또 우리일보 기사는 UPKOREA.net의 5월 13일 16:51 <66차 UN ESCAP 총회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 제하 기사의 대부분을 일부 표현만 바꾼 채 옮겨 놓았다.

그런데도 위 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기사 말미에 각각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6월 1일자 34면 「“슬럼프 선수·포지션 중복 결국 제외”/허정무 감독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종 엔트리 발표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12시간 앞당겨졌다. 기습적인 발표. 허정무감독이 기자들이 묵는 호텔로 찾아온 시간은 모두가 휴식에 들어간 오후 9시(현지시간)였다. 밤새 명단이 퍼져 팀 전체 사기에 적잖이 영향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리더의 섬세함. 그러나 그는 그만큼 냉정하기도 했다. 기회를 줬지만 부응하지 못한 선수, 특히 최근 부진한 선수를 가려냈다고 했다. 다음은 허 감독과의 일문일답.

- 3명의 탈락 배경은?

이근호는 현재 대표팀 공격수들과 비교해보면 슬럼프를 못 벗어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신형민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제 벨라루스와의 평가전에서 안 좋았다. 앞으로 월드컵 본선 세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여파가 오래갈 것으로 판단했다. 구자철은 포지션 중복 등을 고려했다.

-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포워드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 공격수 중 이동국이 완전치 않은 상황이라 그 점이 가장 고민스러웠다. 공격 쪽은 확실한 옵션이 없는 상황이었고, 선수들의 킬러도 비슷해 고민이 많았다.

- 이승렬의 선발 이유는?

이근호와 비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승세를 타는 선수가 누구인가' '최근 경기력이 좋은 선수가 누구인가'에 집중했다.

- 이동국은 그리스와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출전이 힘들지 않은가.

다소 힘들겠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는 가능하다'고 메디컬·피지컬 쪽의 의견이 모아졌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가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는데 상처가 거의 아문 상태다. 1주 후부터는 100% 팀 훈련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리스와 첫 경기에도 후반 교체출전이 가능하겠지만 무리하진 않겠다.(하략) 임○○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한국 축구대표팀 허정무 감독이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지 호텔에서 남아공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23명 명단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현지에 기자를 파견하지 않은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일문일답 기사의 리드 부분을 손질하고 문답내용의 일부 표현을 바꾸거나 축약한 뒤 자사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종 렬

3. 대구신문 발행인 김 경 발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1년 2월 24일자 5면 「“뉴질랜드 지진, 한반도에 직접 영향 없다”」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3월 9일자 14면 「예멘교도소서 반정부 폭동 60여명 사상」 제하의 기사, 대구신문 3월 11일자 3면 「여야, 한·EU FTA 비준 안 내달 처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 부산일보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도민일보)=『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한반도에도 지진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이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는 판구조론상 태평양판과 인도호주판의 경계 지점에 있으나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진과 화산은 판구조의 경계지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연간 1만 4천여 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피해가 나는 규모 5.0 이상만도 연 20회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기상청은 한반도와 인근 해역(영해)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진은 모두 42회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3.0 이상은 5회였다.

또 우리나라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측을 해온 1978년부터 1998년에는 연평균 19회, 디지털방식으로 관측한 199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디지털 방식 관측으로 미세 지진까지 감지돼 수치상으로는 지진 발생건수가 늘었으나 규모 3.0 이상은 연 9회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환태평양 연안에 있는 일본, 대만, 미국, 칠레 등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수차례의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다. 김○○기자』

(부산일보)=『중동지역에서 대통령 등 국가지도자의 퇴진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예멘의 한 교도소 안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재소자들과 진압 경찰이 충돌, 재소자 1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20명은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포하고 공중에 총격을 가하며 진압에 나섰지만 담요와 매트에 불을 붙이고 교도소 마당을 장악한 재소자들을 쉽사리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 사나에 있는 교도소 재소자 2천여 명은 지난 7일 저녁 폭동을 일으키고 수십 명의 경비교도원을 인질로 잡은 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폭동이 8일까지 계속됨에 따라 예멘 군은 이날 교도소 외곽에 병력을 배치하고 진압작전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살레 대통령의 고향인 사나에서는 지난달 반정부 시위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낙서가 대거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

섰다. 또 살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다마르지역에서도 1만여 명이 “떠나라. 떠나라”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쿠웨이트에서도 민주화시위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청년단체 회원 수백 명은 8일 쿠웨이트시티 정부청사 앞에서 2006년 취임한 나세르 총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총리 해임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중동 시위사태 발생 이후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첫 시위로 관심을 모았지만,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바레인에서는 강경 시아파 3개 정파가 입헌군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오만에서는 수도 무스카트 국영TV 앞에서 150명이 언론자유 확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란에서는 보안군이 8일 테헤란 시내의 혁명광장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최○○기자』

(대구신문)=『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한 · 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4월 중순 임시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 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야당도 한 · EU FTA 비준 처리에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합의 처리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4월에는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후속대책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FTA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장○○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 중 경북도민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 2월 23일 09:46 송고 「뉴질랜

드 지진 한반도에 영향 없다“」 제하의 기사 내용을 글자 한자도 침삭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재하고도 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부산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 3월 9일 00:14 송고 「예멘 교도소 반정부 시위…사상자 속출(종합)」 제하 기사의 12개 단락 중 9개 단락의 내용을 전재하면서 일부 표현과 순서를 바꾼 뒤 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대구신문 역시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크레딧으로 〈연합뉴스〉 대신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타 언론사 보도를 자사기자 이름으로

▲ 2010 - 112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칸 2010년 5월 10일자 19면 「“北, 버블제트 어뢰 공격 불가능”/EU 방위산업 전문가 조명진 박사 주장 눈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스포츠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야!”

군 고위 관계자가 지난 7일 “천안함 침몰 해저 펴 속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은 TNT보다 위력이 강한 ‘RDX’(백색·결정성·비수용성 폭약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폭약 성분 배합비

율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천안함 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합금 파편들은 어뢰 앞부분의 탐지센서 외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이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나 중국·러시아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천안함이 미제 혹은 독일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가설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모 신문은 ‘독일제 어뢰다’라고 못 박아 보도하기도 했다. RDX가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주로 서방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그 가운데서도 독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방위산업 전문가로 활동 중인 한 연구가가 온갖 설들을 일축하는 주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눈길을 끈다. 누리꾼의 폭발적인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와 독일국제안보연구원 등에서 활동하고, 유엔 집행이사회 대외국 소속으로 동아시아 안보문제 자문역을 맡고 있는 조명진 박사는 8일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 공격이 유력하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 측면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제나 독일제 등 서방의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버블제트로 천안함을 단방에 두 동강낼 위력을 지닌 어뢰는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에나 장착되는데, 한미합동 훈련이 벌어져 미군의 이지스함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군함들이 바다에 떠 있는 상황에서 1300톤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게 조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북한 잠수함의 어뢰발사대와 독일제 어뢰는 호환성이 없어서 북한에서 어뢰를 밀수입해 쓸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하략) 엄○○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문제의 대목은 두 번째 문장인 <군 고위 관계자가 지난 7일 “천안함 침몰 해저 펴 속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은 TNT보다 위력이 강한 ‘RDX’(백색·결정성·비수용성 폭약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폭약 성분 배합비율과는 다르다”고 전했다.>와 세 번째 문장 <그는 또 “천안함 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합금 파편들은 어뢰 앞부분의 탐지센서 외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이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나 중국·러시아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등 두 군데이다.

이 두 문장은 위 기사를 실은 스포츠칸보다 이틀 전에 발간된 세계일보 5월 8일자 1면 단독 머릿기사에 있는 ‘군 고위 관계자’의 언급 내용과 약간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 거의 일치한다.

‘군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이 세계일보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데다, 스포츠칸 기사 중 군 고위 관계자 발언 날짜가 세계일보와 같은 5월 7일인 점 등으로 미루어 스포츠칸이 세계일보의 단독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도 스포츠칸 취재기자는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 언론사 보도의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 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주 문〉

호남매일 2011년 3월 18일자 1면 「후쿠시마 원전, 오늘 중대 고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망, 실종자가 1만 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 원전의 17일 오후 2시 현재 상황은 헬기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에 물을 붓고 있으나 상황 반전이 쉽지는 않다.

대지진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된 폭발사고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된 데다 사용후 핵연료 과열로 인한 다량의 방사선 누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차 재앙으로 꼽히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부 연안에 직격탄을 날렸다면 2차 재앙인 ‘핵공포’는 세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 최대 위협은 4호기= 일본 대지진 당시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4호기가 이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사용후 핵연료봉의 핵분열 우려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도쿄전력은 16일 후쿠시마 원전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봉이 공기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핵분열 연쇄 반응의 재개 가능성이 “0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피폭시 원전의 피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재때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손상으로 인한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

성에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다.(중략)

◇ 향후 이들이 중대고비= 프랑스 원자력연구기관인 ‘방사능 방어 및 핵안전 연구소(IRSIN)’의 티에리 샤를 소장은 16일(현지시간) “13일 이후로 어떤 대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48시간이 중대 고비”라고 말했다.(후략)/이○○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每日新聞 3월 17일 14:30 송고 기사(3월 18일자 1면 게재)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쳐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첫 문장을 새로 쓰고 每日新聞의 내용 중 절반가량을 줄였으나 每日新聞 기사의 전개 및 구성과 일치하고 ‘제때’를 ‘재때’로 오기한 每日新聞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표절행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통신기사 등 출처 없이 전재

▲ 2010 - 124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忠淸日報 발행인 조 승 남
2.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3.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 문〉

忠淸日報 2010년 11월 1일자 20면 「‘로켓’ 손흥민 데뷔골 ‘작렬’」 제하의 기사와 사진, 호남매일 11월 10일자 2면 「청목회 수사, 검-야당 대치 격화」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11월 15일자 20면 「이대명 대회 첫 3관왕 명중」 제하의 기

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忠淸日報 호남매일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忠淸日報)=『‘로켓’ 손흥민(18·함부르크SV)이 그림 같은 데뷔골을 쏘아 올리며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성공시대를 열었다.

사흘 전 프랑크푸르트와 치른 리그 컵 대회에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30일(한국시간) 2010-2011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전반 24분 골키퍼 키를 넘기는 역전 골로 독일 축구 연착륙을 알렸다.

손흥민은 2007년 다소 늦은 15세의 나이에 강원도 원주 육민관중학교에서 처음 축구공을 접했지만 타고난 스피드와 유연성으로 이듬해 16세 이하(U-16) 축구대표팀에 발탁됐고,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선수권대회에 첫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 4골이나 뽑아내며 준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후 축구 명문 동북고에 진학한 태극소년 손흥민은 2008년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독일 분데스리가로 축구 유학을 떠나면서 한층 기량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선 대표팀 내 최다인 3골을 터트리며 한국의 8강행을 이끌었다.

비록 한국은 4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나이지리아와 8강전에서 손흥민이 전반 40분 상대 미드필드 진영 중앙을 휘젓다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장면은 FIFA가 ‘오늘의 골’로 선정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하략)』

(호남매일)=『(전략) 민주당 등 야5당은 검찰의 이 같은 소환조사를 일절 불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개입 의혹을 겨냥해 집중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당내에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어 여야간 대립 전선이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야 의원과 국회 모두를 마치 어려운 사람에게 돈 받아먹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공작에 절대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딱 한 부로 51곳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51건을 한 장으로 받아 이것을 사본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포폰 논란’을 겨냥, “어제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의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저를 이용해서 수십만 건 지워 버렸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후에도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검찰 고위 간부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야5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하략)』

(충북일보)=『한국 사격의 기대주 이대명(22·한체대)이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이대명은 14일 광저우의 아오티 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합계 685.8점(본선 585점 + 결선 100.8점)으로 중국의 탄종량(684.5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50m 권총 단체전과 이날 오전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낸 이대명은 한국 선수단 첫 3관왕에 올랐다.

이대명은 본선에서 탄종량과 같은 585점을 쏘지만 5번째 시리즈 점수에서 뒤져 2위로 결선에 올랐다. 긴장한 탓인지 결선 첫 발에서 7.9점을 쏘는 데 그친 이대명은 9.9점을 기록한 탄종량과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대명은 3발 째에 10.3점을 기록하며 페이스를 찾았고, 이후 5발 째까지 모두 10점대를 쏘 탄종량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6발 째에서도 10.5점을 쏘 이대명은 9.5점에 그친 탄종량을 밀어내고 역전에 성공, 승기를 잡았다. 나머지 4발에서도 모두 10점대를 기록한 이대명은 2위 탄종량을 1.3점차로 제치고 3관왕을 확정했다.(하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忠清日報 호남매일 충북일보의 위 기사들은 각각 연합뉴스 10월 30일 11:28 송고 「손흥민, 분데스리가 성공시대 활짝」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진, 11월 9일 10:30 송고 「한 “檢 소환조사 응할 것” vs 野 “공작엔 협력 안해”」 제하의 기사, 뉴시스 11월 14일 14:01 송고 「[광저우AG] [종합] 사격 이대명, 10m 공기권총 金 ‘3관왕 등극’」 제하의 기사 등 연합뉴스와 뉴시스 기사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들은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266 신문윤리강령 위반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중

〈주 문〉

江原日報 2010년 12월 3일자 9면 「위키리크스 비밀문서 공개 파문 확산/ “김정일 줄담배… 건강은 양호”」, 「“러시아·체첸 등은 사실상 마피아 국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 줄담배…”〉=『미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줄담배를 피우는 등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지만 건강이나 정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또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북한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때 주민들의 식량난과 영양실조를 숨기기 위해 제 때 식사와 비타민으로 상봉 대상자들을 살찌게 한 뒤 상봉장으로 보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영원한 적은 없다”며 미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 전혀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한 여성사업가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선양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알렸다. 묘향산 초대소에서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이 사업가는 김정일이 “건강이 좋고 정신도 또렷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했다. 상세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며, 기억력이 좋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건강에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식사 중에는 위스키 칵테일을 곁들였고 식사 내내 줄담배를 피웠다. 김정일의 실질적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은 별도의 소파에 앉아 면담 내용을 메모했다.

선양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2010년 1월 비밀전문에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거물급 인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화폐개혁은 당고위층의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또 김정일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먼 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체첸은 마피아 국가”〉=『스페인 검찰 간부가 러시아를 ‘마피아 국가’로 표현한 사실이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 공개로 드러났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1일 전했다.

공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지난 1월 스페인 검찰의 호세 페페 그린다 곤살레스 검사는 마드리드 주재 미국 외교관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 체첸은 사실

상 “마피아 국가”가 됐다고 발언했다. 곤살레스 검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체첸에서는 정부와 범죄조직의 활동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문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마피아 조직에 연루돼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활동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다. 그린다 검사의 발언 가운데는 전 러시아 KGB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러시아 정보 당국이 범죄 조직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린다 검사는 또 러시아 정당들은 범죄 조직과 “손잡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江原日報의 위 기사들은 각각 연합뉴스 12월 2일 09:51 송고 「“김정일 줄담배…건강은 양호”〈위키리크스〉」, 12월 2일 10:12 송고 「“러시아는 마피아 국가”〈위키리크스〉」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전제한 기사다.

그런데도 江原日報는 기사 끝에 연합뉴스 크레디트를 다는 등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한 것임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통신기사 등 출처 명시’에 위배되는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096	全光日報	4. 2.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전격 타결’	경 고
2010-1098	호남매일	4. 2.	김정일, 내달 1~3일 중국 방문	주 의
	江原日報	4. 6.	남아공 흑백갈등 심화… 월드컵 비상	”
2010-1123	全光日報	”	5·18 특별한 인연 ‘데이비드 도링거’씨 광주 온다	경 고
2010-1124	스포츠칸	5. 10.	“北, 버블제트 어뢰 공격 불가능”/EU 방위산업 전문가…	주 의
2010-1148	全光日報	6. 15.	“시간강사 자살사건 진상 철저 조사를”	경 고
	호남매일	6. 22.	‘16강의 빛’ 새벽을 밝혀라	”
2010-1149	江原日報	6. 8.	“원유 유출 차단작업 가을까지 갈 수도”	주 의
	忠淸日報	6. 18.	첫 원정 16강 ‘희망은 있다’	”
2010-1172	全光日報	8. 9.	새 국무총리에 김태호… 39년만의 40대 총리	경 고
	우리일보	8. 10.	8·8 개각 놓고 치열한 공방 불가피	”
	호남매일	8. 13.	日징용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단합’	”
2010-1173	江原日報	7. 7.	美-러시아 조지아 영토 통합 놓고 ‘설전’	주 의
2010-1195	우리일보	8. 31.	한나라당, 총리 후보자 등 사퇴 파장 수습	경 고
2010-1196	江原日報	9. 8.	IAEA 보고서 “이란 고농축 우라늄 22kg 확보”	경 고
2010-1197	호남매일	9. 6.	민주-공화 ‘오바마 자리’ 쟁탈전	주 의
2010-1219	江原日報	10. 18.	“日, 한국 원화 사들이자… 강경론 대두” 외	경 고
2010-1220	호남매일	10. 6.	공공기관, 세금 탈루 ‘앞장’	주 의
2010-1247	江原日報	10. 30.외	천 회장(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귀국시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 외	경 고
2010-1265	호남매일	12. 7.	자동차 터주고 축산물 양보 얻어	경 고
2010-1267	호남매일	12. 7.	北, 南해상 훈련에 ‘전면전’ 위협	경 고
2011-1006	南道日報	1. 4.	광주·전남 개인워크아웃 ‘시들’	주 의
	全光日報	”	”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07	호남매일	1. 4.	광주·전남 개인워크아웃 ‘시들’	경 고
2011-1008	아시아투데이	1. 4.	北 노동적위대, 軍 격상은 김정은 구상?	주 의
	충청타임즈	1. 5.	국립대 교수 철밥통 깨진다/3월부터 성과연봉제 시행	”
	무등일보	1. 10.	민주당 손학규 대표 취임 100일/한나라 꼬리표 떼고 연착륙 성공	”
2011-1009	호남매일	1. 6.외	아프간 미군, 첨단공중정찰기 실전배치 외	경 고
2011-1010	충청타임즈	1. 4.	“추신수, 올 겨울 장기계약 없다”	주 의
	南道日報	1. 13.	‘홍영조 PK 실축’ 북한, UAE와 무승부	”
	전북중앙신문	1. 14.	‘스타 꿈꾸는’ 진짜 스타들 안방극장 점령 나섰다	”
	충북일보	”	“K리그보다 쉽네” 제과로프 결승골/…	”
2011-1011	江原日報	1. 5.외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본격 논의 외	경 고
2011-1043	호남매일	2. 8.	李대통령 “4대강 살리기로 국격 높여”	경 고
2011-1044	아시아투데이	1. 21.	저축은행 고질적 문제 수술대 오른다	주 의
	경기신문	1. 24.	윤빛가람 ‘한풀이 골’ 이란 모래바람 재우다/조광래호 1-0 승…	”
	기호일보	2. 8.	“석 선장, 차도 안 보여”	”
	全南日報	”	“UAE원전, 손해 장사될 수도”/이혜훈, 11조 28년 상환 조건…	”
2011-1045	江原日報	1. 25.외	헤커박사 “美도 北核시설 정교함에 놀라” 외	경 고
2011-1046	호남매일	1. 31.외	‘6경기 5골’ 구자철, 득점왕 등극 외	경 고
2011-1047	충청타임즈	1. 20.외	손흥민 역대 최연소 골 쐈다 외	주 의
	충북일보	1. 24.	“해적과 협상은 없다”/정부, 이례적 군사대응… 경고 메시지	”
	南道日報	1. 28.	“축구가 가장 큰 인기 끌도록 하겠다”	”
	대구신문	1. 31.	동계 아시안게임 팡파르	”
2011-1080	호남매일	3. 18.	후쿠시마 원전, 오늘 중대 고비	경 고

2.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통신 등이 제공한 사진 출처 없이 전제

▲ 2010 - 1126 신문윤리강령 위반

부산일보 발행인 김 중 렬

〈주 문〉

부산일보 2010년 5월 4일자 23면 「김태균 시즌 100타점 이상 ‘정조준’」 기사의 김태균 단독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부산일보는 위 기사에서 연합뉴스 사진을 전제하고도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일보 2010년 5월 4일자 23면〉

▲ 2010 - 124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세계일보 발행인 유 종 관

2.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 행 환

〈주 문〉

세계일보 2010년 10월 30일자 19면 「이창동 감독 ‘시’ 최우수작품상 영예/ 제47회 대중상 4개 부문 석권…윤정희 여우주연상」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 헤럴드경제 11월 15일자 29면 「마장마술 金 뒤에 가슴 아픈 사연 있었네/김군 섭 낙마사고 삼촌 대신 금」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세계일보는 연합뉴스가 東亞日報에서 제공받아 서비스한 사진을,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 제공 사진을 전제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잇따라 ‘주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창동 감독 '시' 최우수작품상 영예

제47회 대중상 4개 부문 석권... 윤정희 여우주연상

이창동 감독의 '시'가 29일 저녁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47회 대중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주요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 각본상 수상작인 이창동 감독의 5번째 장편 '시'는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시나리오상 등 주요 4개 부문을 차지했다. '시'는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60대 할머니 미자(윤정희·사진)가 시쓰기에 도전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린 영화다.

특히 윤정희는 '만무방'에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한 후 16년만의 복귀작 '시'로 또 다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윤태호의 원작만화를 바탕으로 한 강우석 감독의 '이끼'도 감독상을 비롯해 음향기술상, 미술상, 촬영상 등 4개 부문을 수상, '시'와 함께 최다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최다관객(622만명)을 동원한 '아저씨'는 남우주연상, 영상기술타, 편집상 등 3개 부문을, 김태곤 감독의 '맨발의 꿈'은 기획상과 음악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스릴러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신인감독상을 받았

다. 남녀 신인상은 '바람'의 정우와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이민정에게 돌아갔다.

여우조연상은 '하녀'의 윤여정이, 남우조연상은 김희라('시')와 송새벽('방자전')이 공동수상했다. 원로배우 신영균과 최은희는 각각 자랑스런 영화인대상과 영화발전공로상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작 목록.

▲최유주작품상=‘시’ ▲감독상=‘이끼’ ▲남우주연상=원빈(‘아저씨’) ▲여우주연상=윤정희(‘시’) ▲남우조연상=김희라(‘시’), 송해비(‘방자전’) ▲여우조연상=윤여정(‘하늬’) ▲신인감독상=정철수(‘미친놈 살인사건의 전말’) ▲신인여우상=이민정(‘시라노 연애조작’) ▲신인남우상=정우(‘바람’) ▲영성기술상=‘아저씨’ ▲음악기술상=‘이끼’ ▲시나리오상=‘시’ ▲편집상=‘아저씨’ ▲조명상=‘악마를 보았다’ ▲촬영상=‘이끼’ ▲음악상=‘아저씨’

상=‘댄발의 꿈’ ▲의상상=‘방자전’ ▲미
술상=‘이끼’ ▲기획상=‘댄발의 꿈’ ▲
영화발전공로상=최은희 ▲자랑스러운
영화인대상=신영균 ▲해외영화특별상
=압둘 하비드 주마 두바이국제영화제 회
장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세계일보 2010년 10월 30일자 19면〉

마장마술 金 뒤에 가슴아픈 사연 있었네

김균섭 낙마사고 삼촌대신 금



주위에선 '아시안 게임 4연패'의 위업을 축하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번 금메달은 그 이상이다.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아시안게임 4연속 금메달을 달성한 한국 승마 대표팀에 남다른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주목을 끈다. 김균섭(인천체육회)과 김동선(한화켄러리아승마단)이 그들이다.

김군섭은 4년 전 이맘때 비보를 들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종합마술에 출전했던 작은아버지 김형철 선수가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장례식 사진에서 영정을 든 채 눈물을 흘리던 이가 바로 김군섭이었다. 그는 슬픔을 딛고 광저



한국 승마 마장마술 대표팀이 14일 중국 광저우 승마경기장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사하고 있다.

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했고 결국 작은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뤘다.

김군섭은 승마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할아버지 김철규 씨는 1964년 도쿄올림픽 승마 대표선수였다. 아버지 김성철 씨는 인천승마협회 전무이사다. 김군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승마에 입문하며 작은아버지 김형철 씨의 혹독한 지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은 대회 전 물의를 빚어 세

간의 이목을 끌었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입건됐던 것. 당시 비난 여론이 일어 대회 참가가 불투명해 보였으나 어렵게 출전 기회를 잡았고 결국 금메달 사상에 일조했다.

임희훈 기자/imi@heraldm.com

〈헤럴드경제 2010년 11월 15일자 29면〉

▲ 2011 - 1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1년 2월 23일자 D3면 「암덩어리 2cm 이하 때 찾으면 췌장 암·담낭암 완치된다」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朝鮮日報의 위 적시 사진은 프리랜서 작가가 찍은 것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입수해 공개한 사진으로 朝鮮日報는 출처 소개 없이 사진만 게재했다.

이 같은 사진 게재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llegible]

〈조선일보 2011년 2월 23일자 D3면〉

〈통신 등이 제공한 사진 출처 없이 전제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097	경도신문	4. 16.	천안함 침몰 20일만에 함미 인양 모습 드러내	경 고
2010-1099	머니투데이	3. 29.	1주일 훈련해 銀… “연아야 잘했다”	주 의
	파이낸셜뉴스	3. 31.	서희경 이젠 메이저권도 넘본다	”
	한국일보	3. 31.	김태균 2경기 연속 결승타	”
	경향신문	4. 5.	13세 김해진 트리글라프 우승/02년 김연아 닮았네	”
	국민일보	4. 5.	김해진 “연아 언니 닮을래요”	”
	매일경제	4. 7.	김연아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
	세계일보	4. 12.	‘새색시’ 이영애 남편과 첫 공개 나들이	”
2010-1101	江原日報	4. 13.	추신수 터졌다, 시즌 첫 홈런!	주 의
2010-1101	경인일보	”	꿈만 꾸던 그린 탐낼만한 재킷	”
	奎羅日報	”	“톱10 만족”	”
	大田日報	4. 14.	예열 끝난 탱크 “이제는 우승”	”
	蔚山毎日	4. 16.	연아, 오늘 아이스쇼	”
2010-1102	중부매일	4. 9.	신임과 불신임 ‘엇갈린 운명’/‘부진에도 등판’ 박찬호…	주 의
	忠淸日報	4. 13.	모습 드러낸 함미	”
	전북중앙신문	4. 16.	실종자들 주검으로 돌아왔다	”
2010-1125	한국일보	4. 29.	“칸첸중가 등정 논란… 홀리 여사 만나 의혹 풀 것”/…	주 의
	경향신문	5. 3.	일본서 시즌 첫승 신지에 ‘세계 1위 보인다’/…	”
	국민일보	5. 12.	박지성 · 안정환 · 이청용 ‘발끝’을 주목하라/…	”
	서울신문	”	“상업주의 등반? 개인의 선택일 뿐”/‘14좌 완등’ 오은선 귀국회견/…	”
2010-1150	東亞日報	5. 24.	장타 올린 신들린 퍼트	주 의
	파이낸셜뉴스	5. 26.	‘특급 신인’ 물려온다, 신인왕은 누가?	”
	한국일보	”	“브라질과 함께 16강 진출”/북한대표 정대세 큰소리	”
	문화일보	5. 27.	유승민 “게임마다 감독님과 내기…돈 잃긴 싫더라고요”	”
	머니투데이	6. 7.	MB, 대통령 최초 사병묘역 감쪽방문	”
	세계일보	6. 8.	차범근 前감독 SBS 마이크 잡는다/한국戰 등 주요경기 해설 맡아	”
	서울경제	6. 12.	‘제주 바람’이 선택한 그녀, 홍란	”
	헤럴드경제	6. 17.	예선 1차전 ‘무패 南美’ 오늘밤 한국이 켄다	”
2010-1151	奎羅日報	5. 25.	추신수, 역시 해결사	주 의
	새전북신문	5. 26.	“그리스 껌 비책 북한 통해 찾는다”	”
	慶南日報	6. 11.	허정무-레하겔, 지략대결 승자는	”
	경상일보	”	휘슬이 울리면 ‘원정 16강’ 붉은 마법이 시작된다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151	중부매일	”	그리스 ‘先수비 後역습’ 대응책은	”
2010-1152	毎日新聞	5. 24.	4년만에… 유선영 LPGA 첫 우승	주 의
	江原日報	6. 14.외	이정수 최단시간 첫 골 축포… ‘캡틴’ 박지성 이름값 외	”
	忠淸日報	6. 22.	나이지리아 ‘무조건 켄다’	”
2010-1174	파이낸셜뉴스	7. 15.	전군 지휘관회의	주 의
	국민일보	7. 24.	최나연 공동2위/안선주도 추격전/에비앙마스터스 둘째날…	”
	헤럴드경제	7. 26.	‘탱크’ 쿼드러플보기 와르르~	”
	세계일보	7. 29.	“사실상 결승전… 반드시 꺾겠다”/최인철 감독 문답	”
	서울경제	”	한나라 수도권 · 충청서 완승/서울 은평을 등 5곳 휩쓸어…	”
	매일경제	8. 5.	‘역시 메시!’ 4분간 2골/K리그올스타, FC바르셀로나에 2대 5 역전패	”
	한국일보	8. 7.	조윤지 “신인왕이 보여요” 불빅 여자오픈 우승	”
	문화일보	8. 10.	내일 수원경기장에 가면 ‘내일의 한국축구’를 본다/…	”
2010-1175	영남일보	7. 7.	‘결승 티켓 · 황금 신발’ 누구 발 끝에 걸릴까/…	주 의
	호남매일	7. 29.	한나라, 7 · 28재보선 5곳 완승	”
	忠淸日報	8. 12.	떠나는 정운찬	”
2010-1198	머니투데이	8. 27.	관초입은李大통령	주 의
	헤럴드경제	”	카터 訪北/김정일 면담 성사땀 美 “의중과악 가능”	”
	국민일보	8. 30.	여고생 배회경 “고맙다 폭우”	”
	세계일보	9. 3.	2기 조광래호 “세트플레이 더 세밀하게”	”
2010-1200	제주일보	9. 4.	‘추추 트레인’ 타격 폭발	주 의
	호남매일	9. 7.	‘4대강 사업’ 국회 검증 촉구	”
2010-1221	한국경제	9. 29.	‘美 PGA 스타’ 카브레라 · 비에가스 “우승하러 한국 왔어요”	주 의
	국민일보	10. 5.	‘클리브랜드 새 역사’ 추신수	”
	머니투데이	”	박근혜 ‘첨단 이미지’/스마트폰 꺼내들고 “美 정보공개 본받아라”	”
	파이낸셜뉴스	”	不惑!… 물 오른 ‘한국산 탱크’ 최경주	”
	세계일보	10. 12.	‘영원한 에이스’ 가을잔치 이름값/배영수 무실점 세이브	”
	東亞日報	10. 18.	日 그린 ‘코리안데이’	”
2010-1222	헤럴드경제	”	‘김·김 초정밀 샷’ 韓日 그린 점령하다	”
	중부일보	10. 1.외	추신수, ‘광~’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 타점 외	주 의
	大田日報	10. 4.	코리안 특급, 아시안 특급 되다	”
	호남매일	10. 8.	헝가리 슬러지 유출 복구 1년 전망	”
	忠淸日報	10. 14.	칠레 매물광부 첫 구조 ‘69일만의 기적’	”
2010-1250	파이낸셜뉴스	10. 25.	강지민, LPGA 투어 5년만에 우승/9언더파 204타…	주 의
	국민일보	11. 2.	토종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 복원	”
	머니투데이	11. 5.	李大통령 “세계1등 목표, 한국의 국력”	”
	한국경제	11. 8.	신지에 2승째… 사흘간 파5홀서만 버디 11개/…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0-1250	경향신문	11. 15.	2관왕 명중, 김윤미 “아가야 고마워”	”
2010-1251	毎日新聞	10. 28.	에이스 류현진 대만전 출격 예약	주 의
	중부일보	11. 4.	‘산소탱크’ 박지성 맨유의 ‘심장’으로…	”
2010-1268	헤럴드경제	11. 25.	‘亞인간탄환’ 류상 화려한 부활/남자 110m허들 13초09 金	경 고
2010-1269	머니투데이	11. 29.	李 대통령, 申특사 면담	주 의
	문화일보	”	지영준-남자마라톤	”
	東亞日報	11. 30.	동아가 키운 ‘희망’, 한국의 ‘자랑’ 되다	”
	한국일보	”	조연으로 깜짝 金/2년 뒤엔 당당한 주연	”
	서울경제	12. 11.	“날 내친 요미우리 후회하게 만들어야죠”/…	”
2010-1270	중부매일	12. 8.	김비오 “꿈만 같다”/한국 최연소 PGA 투어카드 획득	주 의
2010-1271	경남일보	12. 8.	신지배, 세계1위로 시른 바람	주 의
	중부매일	12. 10	AG 3관왕 마린보이 박태환 포상금 6억원/…	주 의
2011-1022	문화일보	1. 6.	175cm 안재욱 작다고 알보면 큰 코 다친다	주 의
2011-1012	서울신문	1. 12.	축구천재 메시, 통합 ‘FIFA발롱도르’ 첫 수상	”
	한국일보	1. 13.	‘한명숙 재판’ 밝혀야 할 3가지 쟁점	”
	헤럴드경제	”	호주 스타 케이힐 “박지성이 亞 최고”	”
	매일경제	1. 15.	하버드대법대 아시아계 첫 종신 女교수 석지영씨/…	”
2011-1013	奎北日報	1. 4.	하인스 워드 ‘터치다운’ 피츠버그, 디비전 우승	주 의
	大邱日報	1. 5.	‘눈폭탄’ 포항…이틀째 교통·물류대란	”
	충청타임즈	1. 6.	분실 스마트폰 사생활 걱정없다	”
	호남매일	”	호화여객선 ‘디즈니 드림’	”
	기호일보	1. 7.	대한항공, 박태환 선수 후원 ‘1년 더’	”
	무등일보	”	대한항공, 박태환 후원 연장	”
	忠淸日報	”	“태풍의 레이업슛”	”
	인천신문	1. 11.	문태종 팬 투표 4위/30일 올스타전 출전	”
	인천일보	”	인천 전자랜드 문태종 올스타 ‘베스트 4위’에	”
2011-1016	중부일보	1. 12.	C조 1차전 바레인전서 전반 40분·후반 7분 연속골로 2-1 승리	”
	아시아투데이	1. 5.	정성룡, 몸값 높이기 위명업?	주 의
2011-1048	매일경제	1. 29.	구자철을 잡아라… 유럽팀 러브콜	주 의
	서울경제	”	英 볼튼도 구자철에 눈독	”
	국민일보	1. 31.	김효범·이종애 ‘별 중의 왕별’	”
	문화일보	2. 1.	얼음…모래…그린 위에서… 설연휴, 스포츠는 쉬지 않는다	”
	파이낸셜뉴스	2. 2.	“검찰 魂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 필요”	”

결정 번호	신문사	게재일	내 용	위원회 결 정
2011-1048	헤럴드경제	2. 7.	밴쿠버 여운 가시기도 전에…훈련 또 훈련 ‘3관왕’ 결실	”
	머니투데이	2. 9.	개헌 ‘목청 높인’ 친이 ‘말 아끼는’ 친박	”
	한국일보	2. 12.	구자철-손흥민 분데스리가 코리안 첫 맞대결 새역사 쓸까	”
2011-1049	경상일보	1. 19.	집중력 앞선 삼성, KT 7연승 저지	주 의
	중부일보	1. 24.	윤빛가람 ‘벼락 결승골’ ‘내가 바로 이란 종결자’	”
	충북일보	”	해외파 싸움 압도한 ‘캡틴 박’	”
	호남매일	”	이규혁, 통산 4번째 정상 ‘금자탑’	”
	중부매일	1. 27.	조광래 감독 믿음, 결국 독… 그러나 희망을 봤다	”
	아시아투데이	1. 31.	태광 비자금 수사 마무리… 이호진 회장 구속 기소	”
	충청타임즈	”	커밍스 강력한 덩크	”
	인천신문	2. 1.	SK ‘대만 시리즈 MVP’ 짐 매그레인 영입	”
	光州日報	2. 7.	곽민정 희망봤다	”
	대전북신문	2. 9.	새만금방조제서 상팽이 100여 마리 폐죽음	”
	전북중앙신문	2. 11.	“상팽이 집단폐사 새만금 수질과 무관”	”
	蔚山每日	2. 14.	모비스, 6강 멀어지나	”

3. 취재원이 제공한 사진 출처 없이 게재

▲ 2011 - 1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 문〉

충북일보 2011년 1월 11일자 6면 「“신묘년 복 많이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충북일보는 대한항공이 제공한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제했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묘년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항공이 내달 6일까지 복조리 걸기 행사를 실시한다. 인천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객실승무원들과 인천여객서비스지점 여직원들이 함께 복조리를 걸고 있다.

〈충북일보 2011년 1월 11일자 6면〉